

福沢諭吉의 『素本 世界国尽』에 나타난 지명표기에 관한 고찰

변 상 숙*

(e-mail: yewonss@empal.com)

目次

1. 들어가며
 2. 『素本 世界国尽』의 구성
 3. 『素本 世界国尽』의 외국지명의 한자표기
 - 3.1. 훈역으로 쓰인 한자표기
 - 3.2. 의역으로 쓰인 한자표기
 4. 외국지명의 한자표기
 5. 나오며
-

1. 들어가며

본고는 메이지 초기 소학교 교과서로 채택되어 학교 교육으로 이어진 福沢諭吉의 『素本 世界国尽』에 나타난 외국지명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메이지 신정부는 근대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서양문명을 모델로 한 여러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1872년 공포된 학제(学制)는 신분이나 남녀의 차별없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의무가 제도화되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読み、書き、そろばん」 이외에도 지리교육에 할애된 시간이 많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¹⁾ 지리 과목은 문명개화에 필요한 실학적 성격이 강해 일본

* 동의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시간강사

- 1) 川村博忠(2003) 「明治初期の文明開化と地理教育」 『総合人間科学』 第3巻 재인용
〈표1〉 小学校における地理の授業時数

| 小学段階 | 下等 | | | | | | | 上等 | | | | | | | | |
|---------|----|---|---|---|---|---|---|----|---|---|---|---|---|---|---|---|
| 級(半年進級) | 8 | 7 | 6 | 5 | 4 | 3 | 2 | 1 | 8 | 7 | 6 | 5 | 4 | 3 | 2 | 1 |
| 地理読方 | 3 | | | | | | | 6 | | | | | | | | |

의 근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메이지 초기 간행된 『素本 世界国尽』는 기존의 지리서와 달리 서민들이 자연스럽게 지리 지식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쉬운 한자로 된 외국지명 표기가 시도되었다. 기존의 지리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한자표기법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지명 가운데 일부 한자를 일본식 발음으로 바꿔 사용한 경우²⁾, 순수하게 일본식 한자음으로 음역³⁾한 형태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음을 이용한 표기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자국민의 지리교육을 위한 일환으로 훈을 이용한 표기법이 존재하였다는 점은 『素本 世界国尽』이 다른 지리서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외국지명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水持邦雄⁴⁾, 荒川清秀⁵⁾, 上野力⁶⁾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동시대 지리서의 단순대조, 특정 지명에 나타난 의역의 양상, 표기를 크게 세 가지(히라가나 표기, 가타카나 표기, 한자 표기)로 나누어 분석하는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 모두는 중국식 한자를 중심으로 한 표기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비교적 메이지 초(初)라는 비슷한 시기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일본 독자의 한자표기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한 권의 지리서라는 좁은 범위 안에서지만 福沢諭吉가 시도했던 독특한 표기양상이 다른 지리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성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먼저, 『素本 世界国尽』에 쓰인 외국지명의 한자표기를 음역, 훈역, 의역으로 나누어 그 표기양상을 살핀 다음,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⁷⁾과의 대조를 통해 『素本 世界国尽』의 한자표기에 대한 독자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素本 世界国尽』의 구성

福沢諭吉의 『世界国尽』는 1869에 발행된 세계지리 입문서이다. 福沢諭吉는

| | | |
|--------|-------------------------|-------------------------|
| 地理学論講 | 6 6 4 | 6 6 4 2 2 2 2 2 |
| 週総授業時数 | 30 30 30 27 27 26 30 30 | 34 32 30 26 30 30 30 29 |

(注) 山本幸雄(1958) 『地理教育史』

- 프랑스를 나타내는 중국식 한자표기는 「法蘭西」지만, 일본에서는 발음하기 어려운 첫 음절만 「仏」로 바꾸어 「仏蘭西」로 표기한 경우를 말한다.
- 「独逸/Germany」 「豪斯多刺利/Australia」 등의 일본식 표기가 있다.
- 水持邦雄(1990) 「明治初期における外国地名の漢字表記について」 金沢大学語学・文学研究19
- 荒川清秀(2000) 「外国地名の意訳-「劍橋」「牛津」「聖林」「桑港」-」 『文明21』 第5号
- 上野 力 (1981) 「明治初期の外国地名表記」 常葉学園短期大学紀要 (13) 23-30
- 佐藤喜代治(1988) 「付録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 『漢字講座9』 明治書院, pp.381~396. 이 책의 부록 편으로 일반명사를 비롯하여 지명, 인명 등에 대한 한자표기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총 50편의 자료(지리서와 문학작품 등)를 토대로 하여 조사된 지명표기가 가운데 『素本 世界国尽』보다 앞선 시기의 서적류는 단 3편이다.

많은 지리서와 지리 관련 저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世界国尽』는 福沢諭吉의 저서 중에서도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책이며, 각종의 판본이나 위본(偽本)이 출판될 정도로 많은 독자층을 형성하였다.⁸⁾ 『世界国尽』⁹⁾는 1869년의 초판과 1871년의 재판이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72년 합본(合本)하여 만든 3권의 책과 1875년 해서체로 쓴 1권의 책이 있다. 『世界国尽』의 정확한 명칭은 『頭書¹⁰⁾大全世界国尽』로, 본고의 고찰 대상인 『素本 世界国尽』는 3권으로 구성된, 序文, 頭書, 附録 일체를 제외한 본문만을 수록한 것이다. 총루비¹¹⁾는 아니지만 한자 표기된 외국지명에는 반드시 후리가나를 달고 있으며, 일부 지명에서는 한자표기 없이 히라가나로만 표기된 지명도 있음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본문에는 세계를 6대주로 나누어, 아시아·아프리카·유럽·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대양주로 구분하여 다양한 지명과 각 나라의 면적·역사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다소 많은 지명표기가 등장하는 『素本 世界国尽』의 연구는 메이지 초기 한자의 요미(読み)가 어려웠던 일본 지명표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素本 世界国盡』의 외국지명 표기

여기서는 음역, 훈역, 의역에 대해서만 실용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한다.

3.1. 음역으로 쓰인 한자표기

전술한 바와 같이 『素本 世界国盡』의 독자적인 표기법 가운데는 훈역에 대한 것이 있다. 기존의 지도나 지리서가 한어의 영향을 받아 주로 음역으로 쓰인 것과 달리 부분훈역 또는 전체훈역의 표기가 존재한다는 점은 다른 지리서와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한자 사용법에 따른 지명표기를 음역, 훈역, 의역으로 나누어 표기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8) 源昌久(1997) 「福沢諭吉著『世界国尽に関する一研究-書誌学的調査-』 『空間・世界・地理思想』 第2号 p.3

9) 福田正文(1869) 「素本 世界国尽」 『福沢諭吉集』 明治文学全集8, 筑摩書房

10) 「頭書」는 문장의 상단 부분 1/3 가량을 할애해서 문장 내용과 주기(注記)를 그림으로 보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11) 문장 속의 한자에 전부 후리가나를 다는 것을 말한다.

〈표1〉 한자사용법에 따른 지명표기

| 표기 | 개별어수 | 백분율(%) |
|----|------|--------|
| 음역 | 145 | 72.13 |
| 훈역 | 45 | 22.39 |
| 의역 | 7 | 3.48 |
| 기타 | 4 | 1.99 |
| 합계 | 201 | 100.00 |

메이지 초기의 외국지명 표기는 대체로 음역이 주를 이룬다. 『素本 世界国盡』에서도 음역이 접하는 위치는 높지만, 뒤를 이어 훈역이 22.39%로 다른 지리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표기 형태로 쓰였다. 다음으로 의역이 3.48%로 쓰였으며 기타에서는 「英、魯」와 같은 약간의 약어 표기가 쓰여, 『素本 世界国盡』의 한자사용은 크게 음·훈·의역·약어의 형태로 정리된다.

먼저 145개로 72%의 비율을 보이는 음역 가운데 일본어 발음과 한자와의 대응이 유동적인 관계에 있는 「ア・コ・シ・ス・マ・ラ・リ・ル」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2〉과 같다.

〈표2〉 음역의 한자표기 유형

| ア | コ | シ | ス | マ | ラ | リ | ル |
|-----|-----|-----|------|-----|-----|------|------|
| 阿 8 | 古 4 | 志 4 | 須 15 | 麻 3 | 良 8 | 里 11 | 留 28 |
| 亜 3 | 子 1 | 四 1 | 州 5 | 滿 2 | 羅 4 | 利 8 | 爾 1 |
| | | 獅 1 | 西 1 | 磨 1 | | 理 1 | 瑠 1 |
| | | | 巢 1 | 馬 2 | | | |
| | | | 蘇 1 | 魔 1 | | | |
| | | | 壽 1 | 磨 1 | | | |
| | | | 斯 1 | | | | |

음역의 경우, 일본어 발음에 따라 한자표기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스」, 「마」에서 다양한 한자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한자표기 가운데 가장 표기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ル」의 「留」표기로 다양한 지명에서 나타났으며 일본어 발음에 대한 한자표기는 지명의 어두나 어중 어말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메이지 초기 음역된 외국지명의 한자표기 가운데는 기존의 한자표기 방식을 따르면서 다른 한편으로 개인이 고안하여 보다 일본어에 근접하다고 생각되는 발음으로 표기가 시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특히 『素本 世界国盡』의 지명에 대

12) 水持邦雄(1990) 「明治初期における外国地名の漢字表記について」 金沢大学語学・文学研究19에서는 『啓蒙智慧之環』에 나타나는 외국지명 표기가 『世界国盡』, 『西国立志編』과 비교해서 어떤 표기

한 한자표기는 단일표기가 주를 이루며, 다른 지도나 지리서에서 쓰였던 복수 표기¹³⁾ 형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음역으로 쓰인 용례의 일부분이다.

(1) ^{あじや}亞細亞^{いんど}의南一面の海に臨める^{いんど}印度地は西と東に區別して西なる方は
^{こういんど}後^{ぜん いんど}印度、東の方は^{いんど}前^{いんど}印度、こゝに名高き国々は^{しやむ}暹羅、^{あんなん}安南、
^{びるまこく}尾留滿国、其又北に^{さいざうこく}西藏国、政府を立てし国なれど人氣陋しく文字なく西洋人の
 侮を受て懼るゝ計りなり。

예문(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역의 경우는 대체로 한자 1자에 원어의 음이 하나 또는 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いんど}印度, ^{あんなん}安南」과 같은 2자 한자는 지명표기에서 가장 안정적인 음절 형태를 취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¹⁴⁾ 또한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하여 살펴보았을 때 동양권을 나타낸 지명표기에서 2자 한자가 더 용이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3.2. 훈역으로 쓰인 한자표기

훈역 표기에서는 예를 들어 「古論備屋/ころんびや」와 같이 「屋」가 훈으로 읽힌 경우처럼 지명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훈으로 읽힌 경우 부분훈역으로 간주하였다. 전체 외국지명 표기 가운데 22개의 한자에서 부분훈역이 보이며 2개의 지명에서 전체훈역을 찾아볼 수 있었다.

〈표3〉 훈역표기 사용양상

| 부분훈역 | | | 전체훈역 | | |
|------|------|----|------|------|----|
| 한자 | 후리가나 | 횟수 | 한자 | 후리가나 | 횟수 |
| 屋 | や | 16 | 荒火屋 | あらびや | 1 |

양상을 떠는지를 고찰하였는데, 「亞細亞」 「英國」 「印度」 「和蘭」 「魯西亞」 「葡萄牙」 「歐羅巴」와 같이 비교적 친숙한 지명에서는 일치율을 보였다. 그 외의 지명에서는 水持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福沢諭吉의 표기가 특수하여 불일치하는 지명표기가 대다수로 나타난다.

- 13) 예를 들어 「アメリカ」에 대해 「亞米利加」 「亞墨利加」 「米利堅」 「墨利堅」 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14) 朴省姬(2010) 「잡지 『태양(太陽)』에 나타나는 외국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日本語学研究』 第28 輯에서는 王敏東이 종래 중국에서는 지명 표기를 할 때 「長安(장안)」, 「洛陽(낙양)」과 같이 二文字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二文字 형태의 지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안정성으로 인해 긴 단어를 약칭하는 경우에도 二文字의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도 언급되고 있다.

| | | | | | |
|---|-----|---|----|-----|---|
| 尻 | しり | 2 | 尻屋 | しりや | 1 |
| 貝 | かい | 2 | | | |
| 女 | め | 2 | | | |
| 鹿 | しか | 1 | | | |
| 首 | みやこ | 1 | | | |
| 末 | すえ | 1 | | | |
| 突 | つき | 1 | | | |
| 小 | お | 1 | | | |
| 入 | にう | 1 | | | |
| 猿 | ざる | 1 | | | |
| 濱 | はま | 1 | | | |
| 根 | ね | 1 | | | |
| 梁 | やな | 1 | | | |
| 白 | しら | 1 | | | |
| 三 | み | 1 | | | |
| 信 | のび | 1 | | | |
| 森 | もり | 1 | | | |
| 原 | はる | 1 | | | |
| 宮 | みや | 1 | | | |
| 堀 | ほり | 1 | | | |
| 橋 | はし | 1 | | | |

훈역은 대체적으로 음+훈 또는 훈+음의 형태를 띤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屋/や」의 경우, 「阿留世里屋/あるぜにや」, 「越尾比屋/ゑちをびや」, 「加奈里屋/かなりや」 등으로 나타나며, 한 번 훈으로 읽힌 한자는 일관되게 훈으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도 사용횟수는 많지 않으나 다양한 한자에서 훈역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荒火屋/あらびや」, 「尻屋/りや」는 외국 지명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부분훈역이 아닌 전체훈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에 쓰인 「荒火屋」의 표기형태를 살펴보면 「亜拉比亜」, 「亜羅比亞」, 「亜刺伯」, 「荒火屋」, 「亜喇伯」, 「亜拉比」, 「亜刺比亞」의 형태로 쓰였는데 이 중 메이지 17년에 간행된 「増補 懷中節用無尽蔵」에서 福沢諭吉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던 훈역표기 「荒火屋」가 확인된다. 「尻屋」는 「西利牙」, 「細里亜」, 「叙里亜」, 「叙利亜」로 원어의 음절수에 따라 3자 한자로 음역한 형태로 훈역의 양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훈역 표기는 『素本 世界国盡』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로 福沢諭吉 개인이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훈역표기는 기존의 중국식 한자표기에서 벗어나 일본의 한자음에 맞는 표기를 사용함으로써 원음에 보다 가깝고 다른 한편으로 한자수를 줄이는 역할까지 병행하고 있다. 「荒火屋/あらびや」, 「尻屋/りや」가 훈역이 아닌 음역으로 표기되었다면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자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3.3. 의역으로 쓰인 한자표기

- (2) 北に廻りて一面の地中海^{ちちゆうかい}의北〔南〕岸へ臨める国の総名は北阿非利加馬留馬里伊、
- (3) 英吉利領의亞米利加는北極海^{ほくきょかい}의邊より南に隣る合衆國^{がふしゅこく}、北亞米利加를三にして其一分의土地なれど、北は不毛の荒野にて人民僅か十八万、處定めし家もなし。
- (4) 巴奈馬의地峽二十餘里、天平海^{たいへいかい}と阿多羅海、左右に分かる山の脈、船の通ひの便なく、

외국지명 표기의 해양명은 대체적으로 의역된 형태가 많다. 王敏東¹⁵⁾은 「太平洋/Pacific Ocean」, 「地中海/Mediterranean Sea」, 「黒海/Black Sea」 등의 해양명의 표기방식은 의역에 의한 표기가 대부분이며, 지명표기에 나타난 의역의 형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하나의 표기 형태로 정착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는 예가 다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¹⁶⁾ 예문(3)의 「北極海」는 「The Arctic Ocean」, 「太平海」는 「Pacific Ocean」이 의역된 형태이나, 「大平海」는 오늘날의 표기방식인 「太平洋」과는 차이가 있다. 「大平海」는 총 6회 쓰였는데, 초판본을 비롯한 모든 책에서 「大平海」로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太平海」의 표기가 艾儒略의 『職方外紀』¹⁷⁾에서 보이며, 청(淸)대에 들어서 「平洋」, 「太平海」, 「太平洋」, 「平洋」¹⁸⁾등의 용례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大平海」는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지리서의 경우 1789년에 처음으로 「静海」라는 표기가 朽木昌綱의 『泰西輿地図説』에 의해 「太平洋」의 의미로 쓰여진 이후 「東洋海」, 「東洋」, 「大東洋」, 「太平洋海」¹⁹⁾등 다양한 표기 형태를 띠면서 지금의 「太平洋」으로 정착되었다.²⁰⁾ 그러나 앞서 언급된 중국의 자료에서 「太平洋」은 1861년에 사용되었지만, 일본에서는 그 보다 더 앞선 시기인 1855년~1866년에 古賀増의 『度日閑言』에 의

15) 王敏東(1995) 「外国地名の漢字表記についての通時的的研究」大阪大学博士学位論文

16) 朴省姬(2010) 「잡지 『태양(太陽)』에 나타나는 외국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日本語学研究』 第28輯

17) 1623년 이탈리아 선교사 알레니(艾儒略)가 중국 명(明)나라 말기에 한문으로 저술한 세계지리도지(世界地理図志)

18) 「静海」: Walter Henry Medhurst(1847)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Shanghai

「太平海」: 徐繼畲(1848) 『瀛環志略』

「太平洋」: 裨治文(1861) 『聯邦志略』

「平洋」: Wilhelm Lobsheid (1866-1868) 『An English and Chinese Dictionary』 Hongkong

19) 「東洋海」: 司馬江漢(1796) 『和蘭天說』

「東洋」: 本多利明(1799) 『西域物語』

「大東洋」: 魁山無懷子(1855) 『倭蘭年表』

「太平洋海」: 三宅東洋(1860) 『航來日記』

20) 斎藤毅(2005) 『明治のごとば-文明開化と日本語-』講談社

해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해양명이 음이나 훈이 아닌 의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素本 世界国盡』에는 예외적으로 음역으로 표기된 형태도 존재한다. 「大西洋」을 의미하는 「阿多羅海」^{あたらかい}가 그것으로 처음에는 음역이었던 것이 의역으로 변화된 표기 형태이다. 이밖에 「亜大臘海」²¹⁾, 「亜太臘海」²²⁾, 「圧蘭的海」²³⁾와 같이 서양인이 만든 지도와 지리서에는 음역의 형태가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齋藤毅에 의하면 「東洋」, 「西洋」의 지명은 명(明) 후기에 이미 보이며, 「大東洋」, 「小東洋」, 「大西洋」, 「小西洋」의 표기도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22~1610)에 의해 지금의 하와이 부근을 「大東洋」, 일본의 동쪽을 「小東洋」, 포르투갈의 서쪽을 「大西洋」, 인도의 서쪽을 「小西洋」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大西洋/Atlantis Ocean」의 「Atlantis」는 바다에 가라앉은 대서양상의 전설의 섬을 지칭하는 것으로, 음의 대체는 가능했지만 번역이 어려운 단어였다고 한다. 따라서 다른 해양명에 비해 음역된 표기가 늦은 시기까지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예문(3)의 「合衆国」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의역한 형태로 본문에서 몇 차례 쓰였으나, 주된 표기 형태는 「卍米利加」이다. 「合衆国」은 원래 중국에서 사용되었던 표기이며, 일본에서는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米北里堅合同国」이 간략화되어 「共和国」으로 표기되었으나, 1850년을 전후로 중국식 한자인 「合衆国」이 들어오게 된다. “뭇사람이 힘을 합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는 의미의 「合衆」, 「共和」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어에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는 『素本 世界国盡』에 쓰인 외국지명의 한자표기가 어느 정도 독자성을 지니는지 『附錄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과의 대조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4. 『素本 世界国盡』의 한자표기와 『附錄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의 비교

『素本 世界国盡』에 쓰인 외국 지명표기²⁴⁾에 대한 전체적인 양상은 다음 <표4>

-
- 21) 1602년 이탈리아 선교사 마테오리치가 제작한 최초의 한역 세계지도 『坤輿萬國全圖』의 표기 형태이다.
22) 중국 명(明)나라 말기에 예수회의 이탈리아 선교사 알레니가 한문으로 저술한 세계지리도지(世界地理圖志) 『職方外紀』의 표기 형태이다.
23) 1861년 브리지먼이 상해에서 출판한 『聯邦志略』의 표기 형태이다.

과 같다.

〈표4〉 『素本 世界国尽』의 지명표기

| 표기 | 개별어수 | 백분율(%) |
|------|------|--------|
| 한자 | 179 | 89.05 |
| 히라가나 | 22 | 10.95 |
| 합계 | 201 | 100.00 |

〈표4〉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국지명을 나타내는 데에 있어 한자가 점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히라가나 표기가 약11%로 나타났는데 아시아와 아프리카주에서 각각 하나씩 보이며, 나머지는 아메리카와 유럽주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자가 아닌 히라가나로 표기되는 외국지명은 친근도가 약할 경우 가나로 표기되는 경향이 있다고 小林雅宏은 지적하고 있다.²⁵⁾

여기서는 『素本 世界国尽』의 한자표기가 다른 서적과 달리 유니크하고 독자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附録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에 실려 있는 303개의 외국지명 표기와 대조해 보았다. 먼저 『附録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의 한자표기는 모두 음역된 것임을 밝혀둔다. 『素本 世界国尽』의 외국지명 표기 201개 가운데 『附録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과 同形으로 표기된 것이 57개, 異形으로 표기된 것이 32개, 나머지 112개는 상호 일치하는 한자표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하게 표기된 한자의 경우는 이른 시기부터 일본과의 교류가 이뤄졌던 지명이 많으며 예를 들어 「支那, 魯四亞, 利太里, 巴奈馬」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중 동일한 지명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異形으로 표기된 한자 32개를 살펴보면 다음 〈표5〉과 같다.

〈표5〉 異形으로 쓰인 한자표기

| 순서 | 『素本 世界国尽』 | |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 | |
|----|-----------|--------|-----------------------|--------|
| | 한자 | 후리가나 | 한자 | 후리가나 |
| 1 | 西論 | せいろん | 別意蘭, 錫蘭 | セイロン |
| 2 | 論頓 | ろんどん | 龍頓, 倫敦, 倫墩, 蘭墩, 龍動 | ロンドン |
| 3 | 里園 | りおん | 里昂 | リオン |
| 4 | 和新頓 | わしんとん | 花盛頓, 華聖頓, 華盛頓 | ワシントン |
| 5 | 山土逸地 | さんどいっち | 三維斯 | サンドイッチ |
| 6 | 噠国 | でんまるく | 噠国即黃旗, 丁抹, 領墨, 噠馬, 璉馬 | デンマーク |
| 7 | 尾留滿国 | びるまこく | 緬甸 | ビルマ |

24) 여기서 지명이라 함은 국명과 자연지명인 산·강·섬·바다 등을 포함한다.

25) 小林雅宏(1982) 「明治初期の翻譯書からみた外国地名の表記」 『文研論集』 8, pp.139-181

| | | | | |
|----|-------|----------|-----------------------------|---------|
| 8 | 嘉無薩加 | かむさつか | 加莫察加, 堪塞加 | カムチャッカ |
| 9 | 普魯士 | ぷろしや | 普魯社, 普魯西, 普魯亞, 普 | プロシヤ |
| 10 | 麻土律戶 | まどりつど | 麻戶立都, 馬特 | マドリード |
| 11 | 里須盆 | りすぼん | 力斯本 | リスボン |
| 12 | 骨片波辺 | こつぺんはあへん | 哥本哈于 | コペンハーゲン |
| 13 | 須德保留式 | すとくほるむ | 土篤恒 | ストックホルム |
| 14 | 邪魔伊加 | じゃまいか | 牙買加, 日売加, 牙卖加 | ジャマイカ |
| 15 | 澳大利亞 | あふすたたりや | 澳斯多利, 新和蘭, 濠斯刺利 | オーストラリア |
| 16 | 山土逸地 | さんどいっち | 三維斯 | サンドイッチ |
| 17 | 能留英 | のふるゑい | 諾尔物入亜, 椰耳回, 那威, 那威国, 諾威, 挪威 | ノルウェー |
| 18 | 新賀堀 | しんがふる | 新洲府, 新嘉坡 | シンガポール |
| 19 | 弁輕 | べんがる | 孟加拉, 榜葛刺, 榜葛喇 | ベンガル |
| 20 | 佐原 | さはら | 撒哈拉 | サハラ |
| 21 | 猿路仁 | ざるじにや | 徹地利, 沙第尼亞, 左流濡亞 | サルジニア |
| 22 | 駄入部 | だにうぶ | 大奴皮 | ダニューブ |
| 23 | 金田 | かなだ | 加拿大, 加拿他, 加拿太, 加拿陀, 加奈陀 | カナダ |
| 24 | 入世留久 | にうよく | 新約克, 紐約, 新俺特坦, 紐育, 新府 | ニューヨーク |
| 25 | 吉論備屋 | ころんびや | 吉論比屋 | コロンビア |
| 26 | 保留根屋 | ぼるねを | 婆羅, 孖泥 | ボルネオ |
| 27 | 女留保論 | めるほろん | 瑪母綸 | メルボルン |
| 28 | 宇良留 | うらる | 烏拉, 烏拉爾 | ウラル |
| 29 | 巴奈馬 | ばなま | 巴拿馬 | パナマ |
| 30 | 池鯉 | ちり | 智里, 地鯉, 智利 | チリー |
| 31 | 志戶仁 | しどに | 悉土尼 | シドニー |
| 32 | | もすこう | 沒廝箇末突, 莫斯科米亞, 模須科, 莫斯科 | モスクフ |

상기의 <표5> 과 같이 지명표기에 대한 한자가 異形으로 나타나는 이유로는 福沢諭吉의 독자적인 표기법에 기인한 것이며, 또 하나는 훈역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異形으로 쓰인 한자표기 대부분이 다양한 한자로 표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17의 경우, 한자 1자 정도가 동일하게 쓰여 양쪽 모두 음역한 것이며, 18~31의 지명은 『素本 世界国尽』에서 한자 1자 정도가 훈으로 읽힌 경우이나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는 모두 음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지막 32의 「もすこう」는 『素本 世界国尽』에서 한자표기를 하지 않은 것과 달리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에서는 5종류로 음역하여 한자를 표기하고 있다.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에서 가장 많은 한자표기를 보이는 지명은 「ノルウェー/Norway」를 나타내는 「諾尔物入亜, 椰耳回, 那威, 那威国, 諾威, 挪威」이다. 다음으로 「ロンドン/London」의 「龍頓, 倫敦, 倫墩, 蘭墩, 龍動」과 「덴마크/ Denmark」의 「嚏国即黃旗, 丁抹, 領墨, 嚏馬, 璉馬」, 「カナダ/Canada」의 「加拿大国, 加拿他, 加拿太, 加拿陀, 加奈陀」등이 있다. 『素本 世界国尽』의 「能留英」, 「論頓」, 「嚏国」, 「金田」와 비교해 보면 「論頓」, 「嚏国」에서 각각 同形인 「頓」, 「嚏」를 썼으나 대부분 다른 한자로 대체하여 표기된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한자의 수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カナダ/」의 경우, 『素本 世界国尽』에서는 음역이 아닌 훈역으로 표기되어 2자 한자로 쓰인 반면,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에서는 원어의 음을 그대로 따른 3자 한자로 표기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훈으로 표기된 지명은 원어의 발음에 비해 한자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표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음으로 표기된 지명에 있어서는 한자의 수가 양쪽 모두 축소, 확대의 경향이 유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素本 世界国尽』의 한자표기를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의 표기와 비교해 봤을 때 음역의 경우, 기존의 표기와는 다른 독자의 표기법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여러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듯하다. 한편 훈역은 『素本 世界国尽』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 표기법이며 이런 훈역을 사용함으로써 원어의 발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역할도 병행하였다고 보여진다. 水持邦雄²⁶⁾에서는 福沢諭吉의 지명표기가 독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자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문자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이 메이지기에 쓰인 지명표기는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했던 국가, 도시 등에서는 대체적으로 한자표기가 통일된 형태로 나타나며, 그렇지 않은 지명에서는 각종의 지리서나 문학작품 등에서 작가의 개별성향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나오며

이상으로 『素本 世界国盡』에 나오는 외국지명에 쓰인 한자 표기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음역으로 쓰인 한자표기 가운데 일본어의 「ア・コ・シ・ス・マ・ラ・リ・ル」 발음에 대응하는 한자표기가 적게는 2개, 많게는 6개의 형태로 쓰였다. 이와 같이 일본어 발음과 한자가 유동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표기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른 지리서와 가장 큰 차별성을 보이는 훈역표기는 일본의 한자음에 맞는 표기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원음에 가까운 발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의 음이 아닌 훈으로 표기 하는 것은 일본 독자의 방식으로, 음 하나에 한자 하나를 대입시키는 음역의 경우 표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훈역에 의하여 한자의 수를 줄이는 역할까지 병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26) 水持邦雄(1990) 「明治初期における外国地名の漢字表記について」 金沢大学語学・文学研究19

셋째, 의역된 표기 형태는 해양명이라는 특정 표기에만 국한된 경향이 있는데, 의미를 이해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표기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大西洋」을 의미하는 「阿多羅海」와 같이 처음에는 다양한 표기로 음역되던 것이 서서히 의역의 형태로 바뀌어 간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해양명에 비해 의역이 늦어진 이유로는 음의 대체는 비교적 쉬우나, 번역상의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素本 世界国盡』의 표기법이 독자적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附録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의 지명표기와 비교해본 바 異形으로 쓰인 한자표기에서 음역의 경우, 福沢諭吉 개인의 성향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지리서와 가장 큰 차별성을 지니는 훈역의 경우, 전체보다 부분훈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익숙한 자국어 발음으로 외국지명을 익히는 데는 얼마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이상과 같이 『素本 世界国盡』에 나타난 외국지명 한자표기를 음역, 훈역, 의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素本 世界国盡』이라는 좁은 범위 안에서의 지명표기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메이지 전체를 아우르는 지명표기에 대한 일반화를 논하기에는 그 범위가 한정적이다. 따라서 금후의 과제로는 메이지기의 다른 지리서와 동시대의 문학작품을 비교해 한자 표기된 외국 지명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부록>

| | 한자표기 | 후리가나 | 한자표기 | 후리가나 |
|--------|----------|---------|----------|----------|
| 発端 | 亜細亜 | あじや | 亜非利加 | あふりか |
| | 欧羅巴 | えうろつば | 亜米利加 | あめりか |
| | 英吉利 | いぎりす | | |
| 亜細亜州 | 大平海 | たいへいかい | 支那 | から |
| | 北京 | ほくきん | 魯四亜 | ろしや |
| | 志辺里屋 | しべりや | 上海 | じやうかい |
| | 香港 | ほんこん | 印度地 | いんどち |
| | 雁寺州 | がんにす | 阿羅波婆世土 | あらはぼど |
| | 暹羅 | しやむ | 安南 | あんなん |
| | 尾留満国 | びるまんこく | 西臙国 | さいぎょうこく |
| | 滿落花 | まらくわ | 新賀堀 | しんがふる |
| | 須磨多良島 | すまたらじま | 西論 | せいろん |
| | 弁輕 | べんがる | 輕骨田 | かるこつた |
| | 阿美賀仁須丹 | あふかにすたん | 土留喜須丹 | とるきすたん |
| | 尾留知須丹 | びるちすたん | 辺留社 | べるしや |
| | 荒火屋国 | あらびやく | 土留古 | とるこ |
| | 西紅海 | せいこうかい | 末州 | すえす |
| | 尻屋 | しりや | 雨仁屋 | あめにや |
| | 羽禮須多院 | はれすたいん | 志邊里屋 | しべりや |
| | 宇良留 | うらる | 戸保留須喜 | とぼるすき |
| | 伊留久須喜 | いるくすき | 喜阿久田 | きあくた |
| | 壳買成 | ばいばいじやう | 黒竜江 | こくりようこう |
| | 仁古来府 | にこらいふ | 御子突海 | おこつきかい |
| 嘉無薩加 | かむさつか | | べいどろぼるすき | |
| 阿非利加州 | 阿非利加州 | あふりかしう | 衛土府都 | えじふと |
| | 内留河 | ないるかほ | 海棲 | かいろう |
| | 信野國 | のびやく | 楚森国 | そもりこく |
| | 三義原 | さんぎいばる | 茂山比丘 | もさんびく |
| | 麻田槽輕 | まだかすかる | 棚奈竜 | たななりゆう |
| | 阿多羅海 | あたらかい | 発天戶地屋 | ほってんとちや |
| | | ないぜる | 銀名 | ぎんな |
| | 理部利屋国 | りべりやく | 志留良禮恩 | しるられをん |
| | 瀬根賀宮 | せねがみや | 茂緑子 | もるこく |
| | 丹路留 | たんじる | 阿留世里屋 | あるぜりや |
| | 戶仁須 | とにす | 戶里堀 | とりぼり |
| | 馬留加国 | ばるかこく | 邊山国 | へざんこく |
| | 越尾比屋 | えちをびや | 宗段 | そうだん |
| | 佐原 | さはら | 麻寺島 | までらしま |
| | 加奈里屋 | かなりや | 輪留田島 | わるだしま |
| 新都辺礼奈島 | しんとへれなしま | | | |
| 欧羅巴 | 欧羅巴 | えうろつば | 宇良留山・河 | うらるさん・かわ |
| | 裏海 | りかい | 甲賀巢山 | こうかすざん |
| | 治部良留多留 | じぶらるたる | 普魯士 | ぷろしや |
| | 奥地利 | おうすとりや | 蘇格蘭 | すこつとらんと |
| | 阿爾蘭 | いるらんど | 英倫 | えんげらんど |
| | 廷武須 | ていむす | 論頓府 | ろんどんふ |
| | | りいうるぼふる | | びる민んはむ |
| | どぶりん | 堂宇留 | どううる | |

| | | | | |
|--------|-----------------------------|---------|----------|------------|
| | 仏蘭西国 | ふらんすこく | 西班牙 | いすばにや |
| | 白耳義 | べるぎい | 瑞四 | するちつる |
| | 虎留鹿 | こるしか | 巴里斯 | ばりす |
| | 里園 <small>たぐすのかわ</small> | りおん | 麻土律戸 | まどりつど |
| | 田楠 <small>たぐすのかわ</small> の河 | たぐすのかわ | 里須盆 | りすぼん |
| | 馬里留島 | ばりるしま | 猿路仁 | ざるじにや |
| | 獅子里 | ししり | 伊太里国 | いたりやく |
| | 阿留邊山 | あるべんざん | | ふろれんす |
| | 希臘 | ぎりしや | 安全州 | あぜんす |
| | 江土奈山 | えとなさん | 駄入部 | だにうぶ |
| | 宇陰奈 | ういんな | 普魯王国 | ぷろしやく |
| | | はのうふる | 宇留天保留富 | うるてんぼるふ |
| | 馬和里屋 | ばわりや | 礼陰河 | れいいんかは |
| | 瑞西 | すいちつる | | べるん |
| | 和蘭 | おらんだ | 嚏国 | でんまるく |
| | 日耳曼 | ぜるまん | 骨片波辺 | こつぺんはあへん |
| | | ふるすちん | 瑞典 | すえいでん |
| | 能留英 | のふるい | 錐須知屋奈 | きりすちやな |
| | 須徳保留式 | すどくほるむ | 新都平土保留留府 | しんとべいとるぼるふ |
| | | もすこう | | せばすとぼる |
| 北阿米利加州 | 亜米利加 | あめりか | 馬良尾 | ばらを |
| | 麻瀨欄 | まぜらん | 雁保留仁屋 | かりほるにや |
| | 具理陰蘭土 | ぐりいんらんど | 伊須蘭土 | いすらんど |
| | 英吉利 | いぎりす | 老蓮州 | ろうれんす |
| | 喜別久 | きべつく | 門土里留 | もんとりいる |
| | 小田羽府 | をだはふ | 小田羽河 | をだはがは |
| | 新見の国 | しんみのくに | 金田 | かなだ |
| | 入世留久 | にうよるく | | ほふすとん |
| | | ふひらでるひや | | ばるちもふる |
| | | かりほるにや | 和新頓 | わしんとん |
| | 女喜志古 | めきしこ | 赤保留古 | あかぼるこ |
| | 中亜米利加 | ちうあめりか | 西印度 | せいいんど |
| | 猿和土留 | ざるわどる | 拜地 | はいち |
| | 邪魔伊加 | じゃまいか | 久場 | きゆば |
| 馬浜 | ばはま | 葉和奈 | はわな | |
| 南阿米利加州 | 巴奈馬 | ばなま | 古論備屋 | ころんびや |
| | 赤道国 | せきだうこく | 部根重良 | べねじゆうら |
| | | りをじやねいろ | 五井梁 | ごるやな |
| | 武良尻 | ぶらじり | 葡萄牙 | ぼるとがる |
| | 保里備屋 | ぼりびや | 巴羅貝 | ばらかい |
| | 宇柳貝 | うりゆかい | 良富羅多 | らぶらた |
| | 巴多呉仁屋 | ばたごにや | 火の国 | ひのくに |
| | 池鯉 | ちり | | けいふほふるん |
| | 平柳国 | べおりゆうこく | | いやくちよ |
| | | りま | | くずこ |
| | ちんちや | | るぼす | |
| 大洋州 | 保留根尾 | ぼるねを | 爪哇 | じやわ |
| | 瀬礼部須 | せれべす | 呂宋 | るすん |
| | 須拜州 | すばいす | 新銀名 | しんぎんな |
| | 澳大利亞 | あふすたたりや | 女留保論 | めるほろん |

| | | | | |
|--|------|--------|-------|---------|
| | 志戸仁 | しどに | 多寿女仁屋 | たすまにや |
| | 地伊蘭土 | ちいらんど | 新地伊蘭土 | しんちいらんど |
| | 山土逸地 | さんどいつち | 王風島 | わうふうじま |
| | 花瑠々 | はなるる | | |

【参考文献】

- 宛字外来語辞典編集委員会(1979) 『宛字外来語辞典』 柏書房
- 荒川清秀(2000) 「外国地名の意識-「劍橋」「牛津」「聖林」「桑港」-」 『文明21』 第5号
- 上野 力(1981) 「明治初期の外国地名表記」 常葉学園短期大学紀要 (13), 23-30
- _____ (1985) 「明治初期の漢字の読み方とめぐって」 常葉学園短期大学紀要(16)
- 川村博忠(2003) 「明治初期の文明開化と地理教育」 『総合人間科学』 第3卷
- 小林雅宏(1982) 「明治初期の翻訳書からみた外国地名の表記」 『文研論集』 8, pp.139-181
- 斎藤 毅(2005) 『明治のごとば-文明開化と日本語-』 講談社
- 杉本つとむ(1944) 「あて字概説」 『あて字用例辞典』 雄山閣
- 水持邦雄(1990) 「明治初期における外国地名の漢字表記について」 金沢大学語学・文学研究19
- 源昌 久(1997) 「福沢諭吉著『世界国尽に関する一研究-書誌学的調査-』」 『空間・世界・地理思想』 第2号 p.3
- 福田正文(1869) 「素本 世界国尽」 『福沢諭吉集』 明治文学全集8, 筑摩書房
- 山本彩加(2009) 「近代日本語における外国地名の漢字表記-明治・大正期の新聞を資料として-」 千葉大学日本文化論叢(10)
- 王敏東(1995) 「外国地名の漢字表記についての通時的的研究」 大阪大学博士学位論文
- 朴省姫(2010) 「잡지 『태양(太陽)』에 나타나는 외국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日本語学研究』 第28輯
- 李漢燮(1999) 「西遊見聞에 나타난 外国地名 및 人名의 漢字表記에 대하여-日本式表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일본어학연구』, 한국일본어학회
- 鄭英淑(2000) 「開化期資料에 나타난 外国地名의 漢字表記 研究」,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자료】

- 福田正文(1869) 「素本 世界国尽」 『福沢諭吉集』 明治文学全集8, 筑摩書房
- 佐藤喜代治(1988) 「外来語の漢字表記一覽」 『漢字講座9』 明治書院, pp.381~396.

要 旨

本報告では、明治初期の小学校教科書に採択され、学校教育につながった福沢諭吉の『素本世界国尽』に現われた外国地名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その結果、次のような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まず、音訳については既存の外国地名表記と大差なしに中国の漢字をそのまま受け入れて使った傾向がある。このような音訳の中、「ア・コ・シ・ス・マ・ラ・リ・ル」発音と対応する漢字表記を調べてみたところ、少なくとも2個、多くて6個の漢字が使われており、日本語発音と漢字が流動的な関係にあるということは表記の規定が明確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を裏付けている。

第二に、他の地理書と最大の差別性が見られる訓訳表記は日本の漢字音に当たる表記を使うことで、より原音に近い発音をした。漢字の音ではない訓で表記することは日本独自の方式で、音一つに漢字一つを代入させる音訳は表記の長くなるきらいがあるので、訓訳して漢字の数を減らす役割までしたものである。

第三に、意識された表記形態は海洋名という特定表記にだけ限った傾向があるので、意味を理解することが容易だという長所がある。しかしながら表記の根源をさかのぼると「大西洋」を意味する「阿多羅海」という多様な表記で音訳されたことが徐々に意識の形態に変わっていくことが分かる。他の海洋名に比べて意識が遅くなった理由としては原音を日本語で代えることは分かったが、翻訳上の難しさが原因であった。

最後に、『素本世界国尽』の表記法が独自のだということを証明する方法として『附録外来語の漢字表記一覧』の地名表記と比べてみたところ、部分訓訳の占める比率が高いことで慣れた母国語である日本語の発音で外国地名を覚えるのに幾分肯定的な役割をした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明治期、外国地名、漢字表記、音訳、訓訳、意識

투 고 : 2012. 11. 30
1차 심사 : 2012. 12. 15
2차 심사 : 2013. 1. 5